

제목 : 히스기야의 기도

본문 : 왕하 20:1-11

시작찬송가 : 340(새542), 344(새545), 434(새384)

현금찬송가 : 350(새320), 483(새539), 487(새369)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능력있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를 만들어 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스필전 목사님은 “기도가 없는 영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전쟁전이나 전쟁 중이나, 화병 전이나 화병 후에도 한결 같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승리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 시험을 이기는 기도

- ①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pi \epsilon \iota \rho \alpha \sigma \mu \acute{o} \varsigma$)인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과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성도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유혹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 ②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기도입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잠들었을 때 시험이 들었고, 다윗은 낮잠을 자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때 잠들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취해 잠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창 9: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

마 26:40-41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 ③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시험이 다가올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 65: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2. 히스기야의 기도

- ① 히스기야는 어려움 중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기도할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일수록 더 잘 믿고 기도해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심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하 19:14-15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상반절) 기도하여 가로되

시 50:15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 ②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나 환난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가득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 38:3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 2 -